

올 설 명절 농식품 소비 위축

구매 유형별 조사서도 선물용·명절음식용·차례용 농식품 모두 감소화...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축된 경제상황 주원인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올해 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과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2022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을 분석해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 패널 9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구매 유형별 조사에서는 선물용 농식품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선물을 줄이는 이유로 '가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위축된

경제 상황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명절 음식용 농식품의 경우도 설에 모이는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감소하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에 많이 구매하는 농산물로 과일은 사과(38.8%), 배(24.8%), 귤(9.4%)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쇠고기는 등심(19.3%), 양지(17.8%), 갈비(15.6%)순으로 많았다. 돼지고기는 삼겹살(41.3%), 목심(19.2%), 갈비(16.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용 농식품도 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차례를 지내는 응답이 39%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보다 17%p

감소했다.

이로 인해 차례용 과일을 넉넉하게 구매(21.6%)하기보다 차례상에 올릴 만큼만 구매하겠다는 응답(61.3%)이 가장 많았다. 집회는 완제품 또는 반조리 상품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나물류는 직접 조리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구입 장소 및 품목 조사에 따르면 농식품을 대형마트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많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감소세를 보였다. 대신 온라인이나 가까운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꼭 구매한다는 품목은 주로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9.8%), 계란(9.2%), 배(8.2%)순으로 나타났고, 가격이 비싸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품목은 딸기(8.0%), 파프리카(8.1%), 참 채소(6.3%)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인 '완화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절반가량(49%)이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소비자의 18%가 농식품으로 선물을 변경하고 금액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과일과 한우 등 신선식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으며, 완화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가공식품의 구매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진청 산하농협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명절용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실속형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응해 품질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일 김제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에 '활기'

전북중기청, 김제전통시장 찾아 설 맞이 정보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설 맞이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를 25일 김제전통시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나눠 분산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의 안정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정보기 행사에는 ▲전북중기청 및 전북기계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황석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센터장 박성진)·점음센터(센터장 조규연)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근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기술보존기기 전주지점(지점장 이장훈)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 ▲이노비즈협회 전북연합회(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 등 전북지역 중소기업 협·단체에서 참여했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오늘 행사는 코로나 이후 위축된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설 명절의 풍성함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전통시장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대희기자

중대재해처벌법령

대응 Q&A 회원사 안내

건협 전북도회, 앞서 대응 설명회 실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고용노동부에서 자주 받는 질문에 관한 Q&A해설서를 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 Q&A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들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방섭 회장은 "본사 및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일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최대희기자



김승환 교육감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ESG 실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에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aT-전북교육청, ESG 실천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전북 지역의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5일 도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 등 ESG까지 실천 ▲로컬푸드 활용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 780여개의 초·중·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부·영양교사의 현장점검 등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화특성지 사업에 의거한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과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과 녹색 식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해 9월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43개 지자체·교육청·협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캠페인의 대국민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로컬푸드는 지역 경제를 살릴뿐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한다"며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일선 학교로 확산시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사장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미래세대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전국 11조원 규모

설 특별자금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경민 본부장)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11조원 규모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자금 지원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자금잔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자금 6조원, 기간연장 5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대출 모두를 포함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상품에 따라 최고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경.

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출시된 NH의플러스 특별보증대출과 NH의플러스의 신용대출을 통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농협중앙회 임실지부

설 맞이 사랑의 떡 나눔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는 지난 24일 임실군청을 찾아 떡(3kg) 200개를 전달하는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나눔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실시됐으며, 기탁한 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진산 지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경영 노사 공동 선언

LX, 중대재해 0·안전사고 35%↓ 목표 예산·인력 보강, 현장관리 강화

LX한국토정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밀착형 안전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LX공사는 25일 중대재해 제로와 안전사고 35% 감축을 목표로 전국 지역본부·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안전보건경영에 방점을 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하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LX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전국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책임자(부설기관장·지역본부장), 관리감독자(지사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취약시기(혹서기·혹한기·미세먼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자율운영권을 부여해 선조치 후보고 체계를 가동하며, 직업성 질병(렘트스피라증·레지오넬라증·열사병)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모든 사고가 서두르는 데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장 중심 지원과 속도 조절을 강화해 안전보건의 질을 높이고 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국립중자원, 내달 7일부터 종자산업 전문교육

국립중자원(원장 직무대리 김병준)은 맞춤형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45개 과정, 1,555명)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오는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센터는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기자재, 국제회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계열 고등·대학생, 종자 관련 담당 공무원·교원에게 맞춤형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종자산업 종사자 교육수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5개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12개 교육과정을 개선,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교육을 살펴보면 종자·육묘업 종사자 대상 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작물별 육묘 및 육종 기술, 무병묘 생산기술, 종자 품질검정과 수출 및 마케팅 기술 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라는 인식을 강화해 안전보건의 질을 높이고 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이 새로 도입된다. 농생명 계열 고등·대학(원)생 등 미래인력 대상으로는 체계적인 기술 배양이 가능하도록 교배와 접목 기술 등 기초 분야부터 조직배양, 종자검정, 병리검정, 유전자분석 등 전문 분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종자 담당 공무원·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 중학생 진로체험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원에 과정이 마련돼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과정도 운영한다.

국립중자원 서병열 교육센터장은 "교육센터가 마련한 종자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종자·육묘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도모해 종자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자업계, 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명품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며 교육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일정 및 세부 안내 사항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c.dgkr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